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빈도

국립의료원 내과

이다현 · 나수지 · 이승훈 · 차혁환 · 문가슬 · 박선영 · 전용덕

Prevalence of Hypothyroidism in Person with Chronic Kidney Disease

National Medical Center Internal Medicine

배경 및 연구 목적: 만성 신장 질환에서 원발성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종, 갑상선암) 빈도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역학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로 대변되는 신장 기능과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관계 및 임상적 의미,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와 외래에서 갑상선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갑상선 기능 변화 추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방법: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립 중앙 의료원 건강 증진 센터를 통해 검진 받은 1,490명과 2010년 국립 중앙 의료원 인공 신장실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구체 여과율 (MDRD-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수치에 따라서 90 mL/min/1.73m² 이상을 I군 915명, 60 mL/min/1.73m² 이상 90 mL/min/1.73m² 미만을 II군 545명, 60 mL/min/1.73m² 미만을 III군 30명,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를 IV군 64명으로 분류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결 과: 전체 1,554명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183명 (11.7%) 였으며 비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1,371명 (88.3%) 였다.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갑상선 기능 검사상 TSH ($p=0.555$), FT4 ($p=0.001$), T3 ($p=0.001$)로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갑상선 저하증의 검사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비율 역시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18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에서 보이는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점진적인 갑상선 기능 이상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갑상선 기능 이상은 아직 정확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메카니즘 및 임상적 의미, 치료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다. 향후 대규모의 임상 연구를 통하여 갑상선 기능과 신장 기능 관계 및 임상적 의미 규명이 필요하다.

Key Words: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신질환, 사구체여과율

Hypothyroidism, Chronic kidney disease, GFR